2026

바다숨 전시회

Guide Book

주최/주관

GS 리테일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TEAM BOOSTER™
TRIMIX DIVING TEAM

이 프로젝트는 버려진 폐가전 자원순환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Prologue.

프롤로그:
안내의 글

도심 만나는 우리 바다의 숨결.

숨 가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숨 사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S리테일과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에서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는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 '바다숨 프로젝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눈앞의 수중 사진을 보며 ‘어디서 찍었을까’, ‘어떤 생물일까’,
‘왜 이 순간을 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프레임 뒤에는 단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낼 수 없는 바닷속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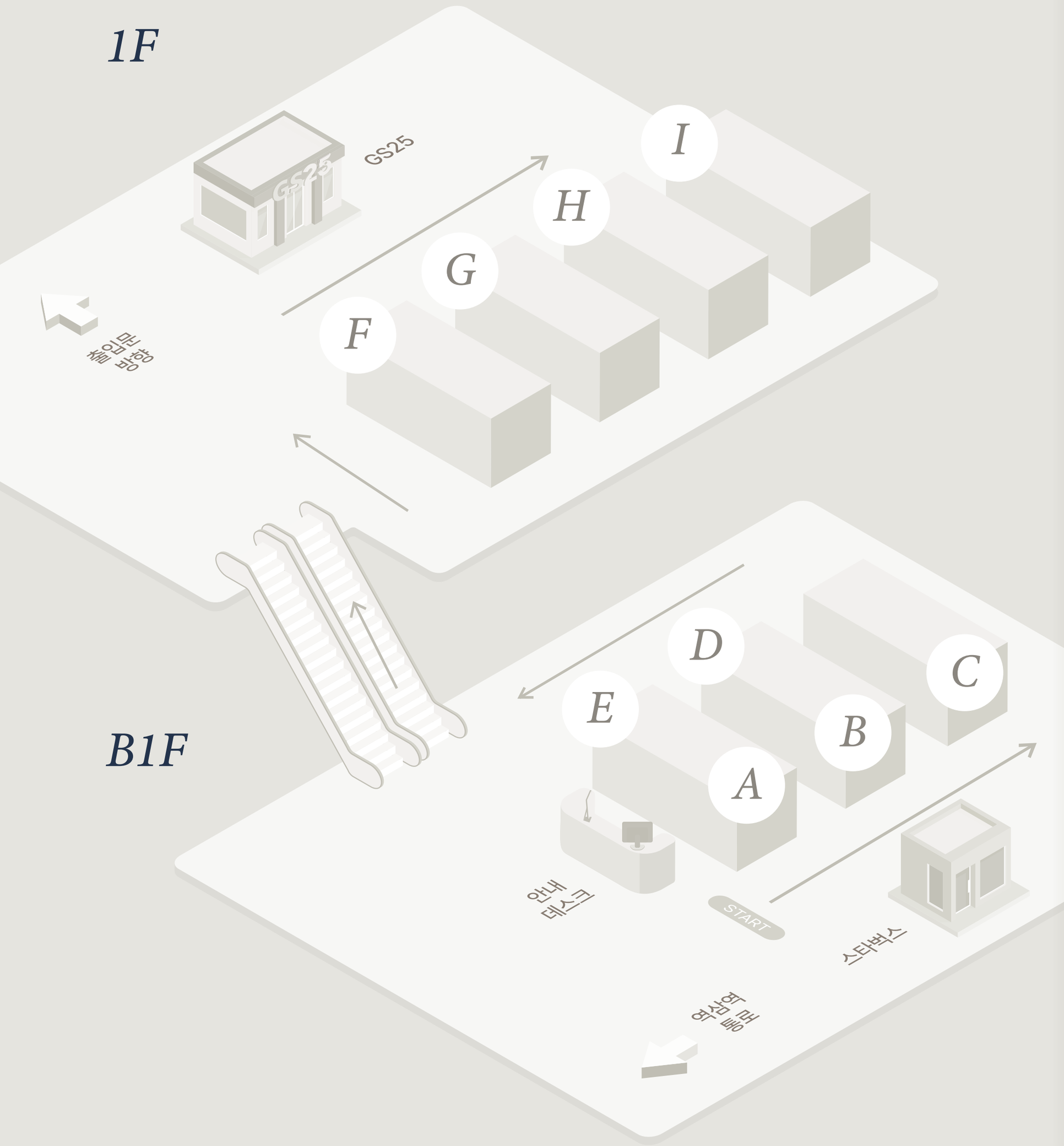
알록달록한 해양 생물이 숨쉬는 이야기, 고요한 해저의 풍경과
위기의 요람 잘피숲, 그리고 해양쓰레기에 맞서 바다의 숨길을 열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본 가이드북은 프레임 속 다양한 가치를
여러분께 온전히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전시 안내도'에서 현재 서 계신 구역을 터치하시면
눈앞의 작품에 담긴 세부 해설로 연결됩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 손안의 가이드북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Exhibition Map.

바다숨
전시 안내

지하 1층 5개 벽면과 지상 1층 4개 벽면 아홉 개의 이야기를 따라 만나는 바다숨 전시회.
벽면을 터치하시면 눈앞의 작품에 담긴 세부 해설로 연결됩니다.



한 눈에 보는 바다숨 이야기

- **A** 바다숨의 시작
- **B** 생명의 요람
- **C** 수면 아래의 사투
- **D** 바다의 깊이
- **E** 바다의 품
- **F** 찬란한 우리 바다
- **G** 다채로운 이웃들
- **H** 숨쉬는 생태계
- **I** 숨쉬는 생태계

이야기의 시작점

바다숨 프로젝트

바다의 숨이
막히고 있다

숨 쉬는 바다를 위해,
바다숨 프로젝트

바다의
숨이
막히고 있다

우리 바다는 조용히 병들고 있다.
학술지《사이언스》연구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1초에 약 250kg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 문장을 읽는 사이에도 그만큼의 쓰레기가
바다에 더해지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해변의 쓰레기는 일부일 뿐이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축적된 쓰레기는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더 큰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의 성질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진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이는 다시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로 이어져 결국 우리의 식탁까지 되돌아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다의 숨이 막히고 있다.
막힌 바다의 숨을, 터주어야 한다.

숨 쉬는
바다를 위해,
바다숨 프로젝트

그래서 GS리테일은 해양 NGO와 '바다숨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바다숨은 바닷속 폐기물을 수거해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그 안의 생명들이 다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이다.

바다숨 프로젝트란

해양쓰레기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바다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GS리테일의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입니다.

Wall — A

바다숨의 시작





바다거북에서
잘피숲으로

2025년, 바다숨이 첫 번째로 주목한 생명은
플라스틱 오염의 직격탄을 맞은 '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삼키거나
폐그물에 얽혀 목숨을 잃는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바다에서 관찰되는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 위기 종이자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비단 푸른바다거북뿐만 아니라 국내 바다를 회유하는
거북류 5종 전체가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종이다.
이에 바다숨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바다거북을 위해
서식지 주변의 해양쓰레기를 우선적으로 걷어냈다.

바다거북이 안전하게 헤엄칠 바다를 만드는 일은
2026년 새로운 테마인 '잘피' 복원으로 이어진다.

잘피는 수많은 어린 생물을 품어 기르는 바다의
요람이지만, 바닥에 가라앉은 침적 쓰레기 탓에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 바다의 정원사, 바다거북을 위협하던
쓰레기에 주목한 바다숨은 올해 바다의 요람인 잘피
서식지를 정화하며 바다를 지키는 실천을 이어간다.

생존과 본능



박찬용

제주도 해역

제주 바다에서 문어를 먹고 있는 바다거북을 운 좋게 만났다. 포식과 생존, 다시 자연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이 담겼다.

A — 바다숨의 시작

빛이 숨 쉬는 곳



이수학

강원도 고성 공현진 해변

수면을 지나 내린 빛이 잘피숲에 닿는다.

Wall — B

생명의 요람







잘피숲이 품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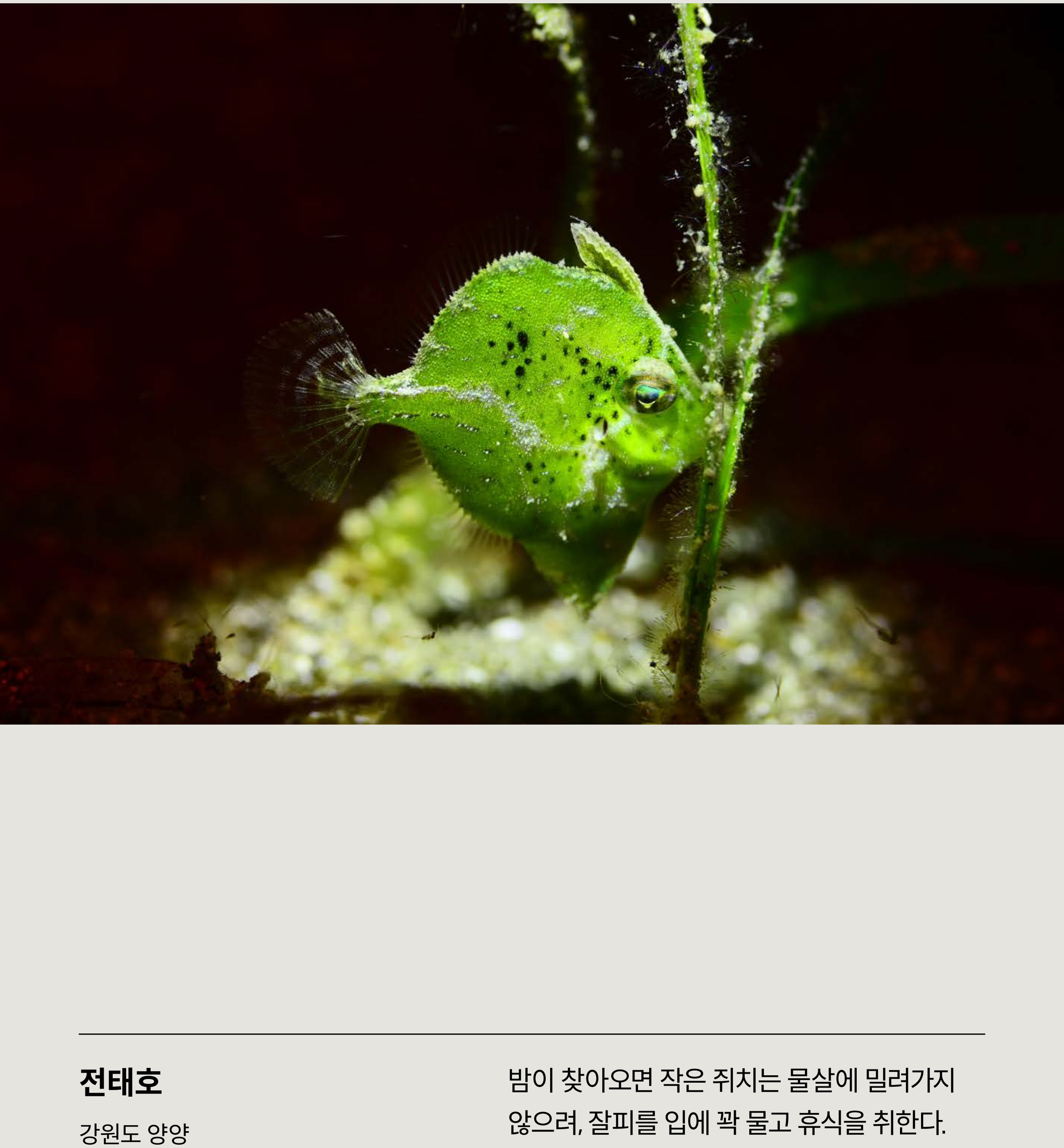
바닷속에도 푸른 숲이 존재한다. 모래와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해양 식물, '잘피' 군락이다.
평범한 수초처럼 보이지만, 잘피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Blue Carbon)' 생태계다.

블루카본은 바다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뜻하는데,
잘피숲은 육상의 숲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
지구온난화로 끓어오르는 지구를 식힐 핵심 열쇠로 꼽힌다.

그러나 잘피 서식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머리말을 비롯해
잘피류 6종 전체가 국가적인 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벽면에 전시된 작품들은 이 숲을 유일한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해양 생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바닷속 쓰레기들이 잘피를 덮치며 작은 생명들의
보금자리도 점차 빛을 잃어가는 중이다.
사진 속 생명들이 내일도 무사히 살아가기 위해선
우선 잘피가 무사히 숨 쉴 바다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면 중



전태호

강원도 양양

밤이 찾아오면 작은 쥐치는 물살에 밀려가지
않으려, 잘피를 입에 꽉 물고 휴식을 취한다.
잠들기 전 이불을 붙잡는 우리 모습처럼
평온하고 사랑스럽다.

생명의 길



허만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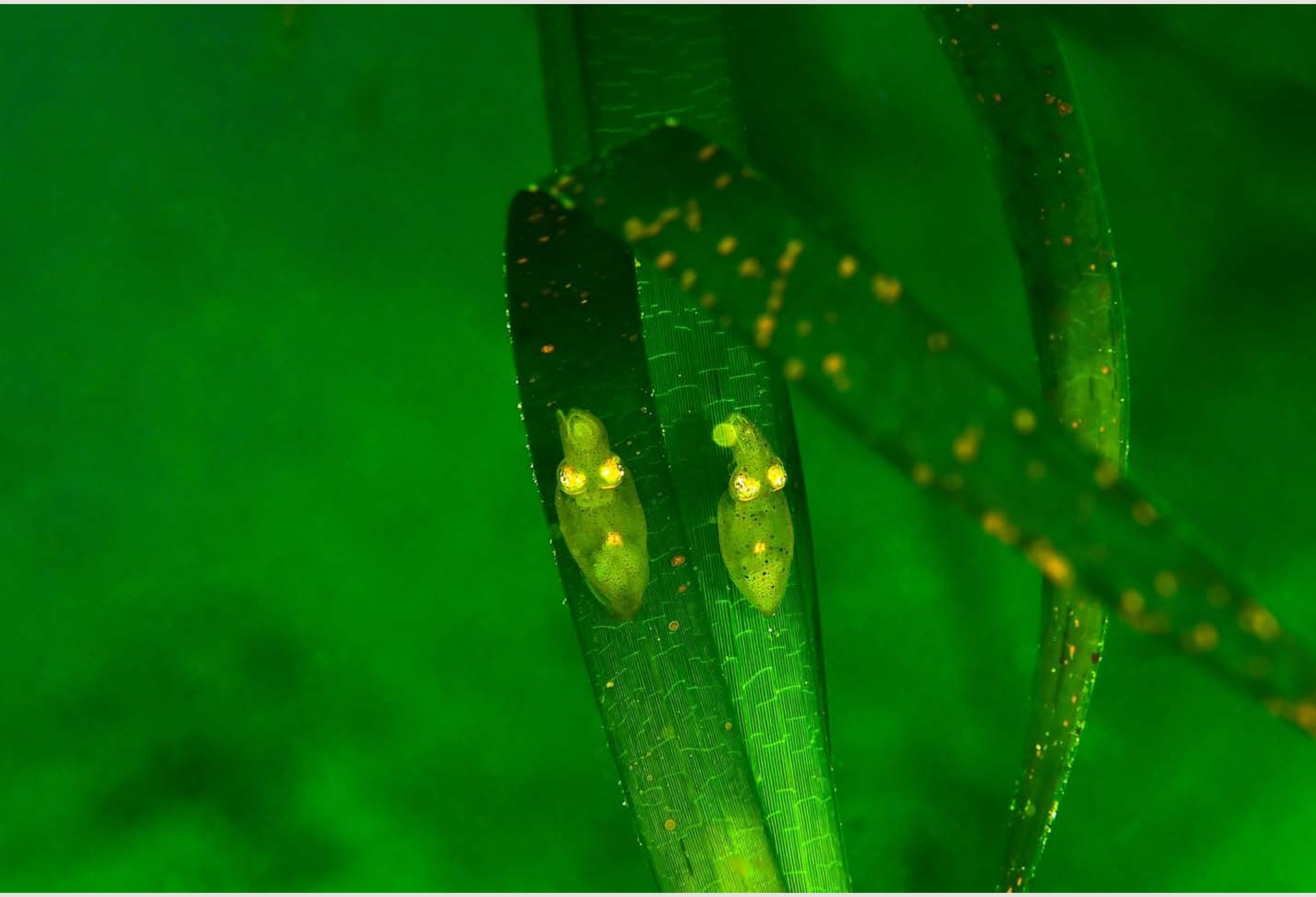
강원도 주문진

고둥 한 마리가 잘피 줄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알을 낳고 있다. 척박해 보이는 바닷속에서도 생명은 제자리를 찾아 삶을 이어간다.

B

생명의 요람

공존



전태호

강원도 고성

넓은 바닷속 잘피 줄기 위에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꼴뚜기 두 마리. 휴식과 만남, 그리고 동행.

삶의 터전



윤석배

강원도 주문진

빽빽한 잘피숲 사이 작은 생명들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먹이를 찾으며,
삶을 잇는다.

Wall — C

수면 아래의 사투









덫을 걷어내다

해저 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는 조류나 파도의 힘만으로
밖으로 밀려 나오기 어렵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그물은
사람의 손을 떠난 뒤에도 무서운 조업을 이어간다.
애초에 생명을 옭아매도록 설계된 탓이다.

작은 물고기가 걸려 죽으면 사체 냄새를 맡고 온
더 큰 포식자가 걸려들고, 얽힌 생명이 죽으면
다음 생명이 또다시 희생된다.

이러한 덫과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은 물론 생명의 요람인
잘피 서식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닷속을 떠돌던
쓰레기들이 연안의 잘피 군락 주위로 가라앉아
햇빛을 가리고 정상적인 호흡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다숨 프로젝트는 올해 동해안의 핵심 잘피 서식지
강원도 양양 앞바다를 거점으로 수중 정화에 나섰다.
여러 단체의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어,
해양쓰레기와 얽힌 폐그물을 걷어 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잘피 서식지 인근에 어떤 오염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잘피의 상태는 어떠한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침묵의 잔해



김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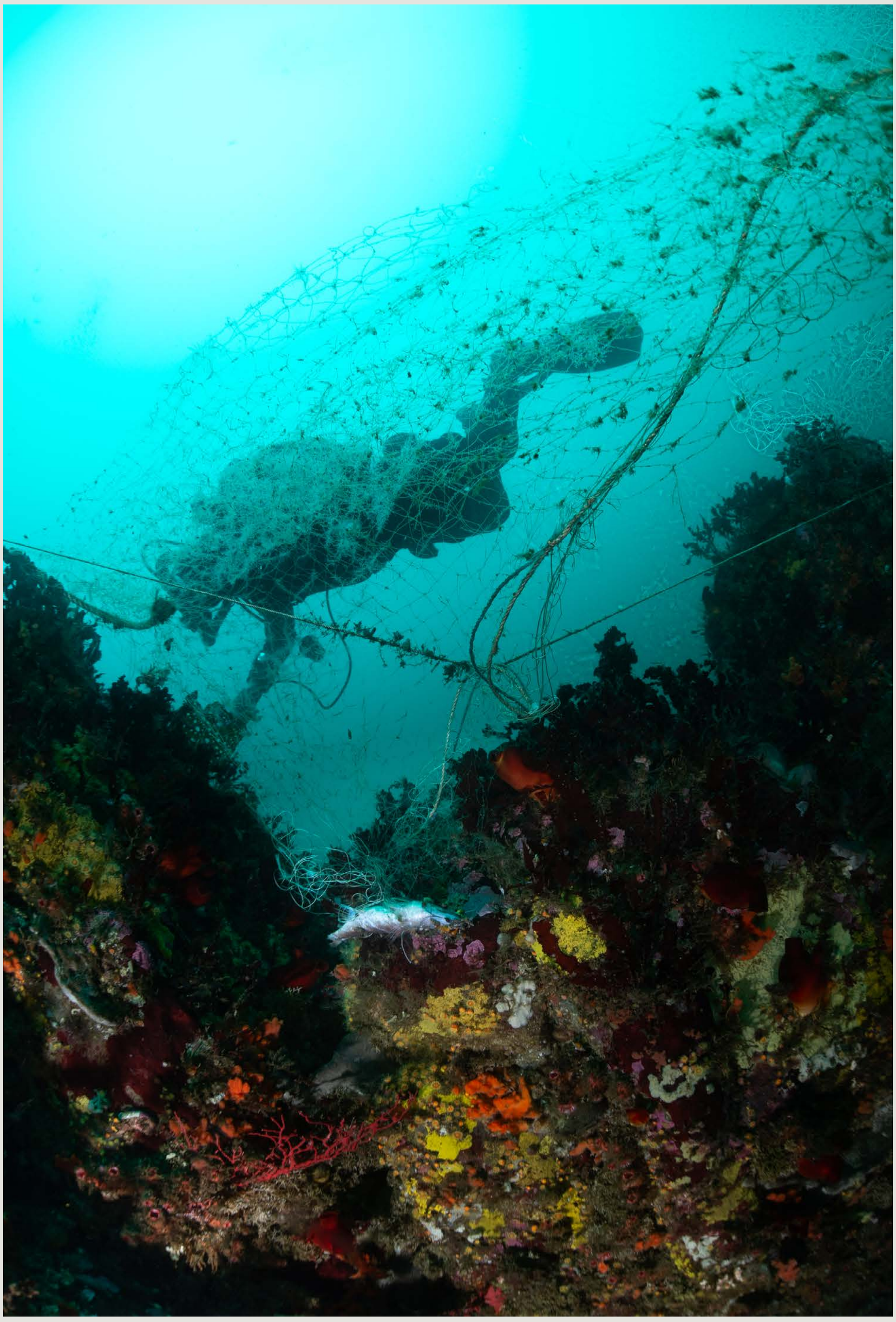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

버려진 밧줄과 폐어구, 해양쓰레기는
인간에게는 이미 끝난 물건이지만 바닷속에
들어온 순간 기나긴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바다숨 양양 프로젝트에서 부양백으로
해양쓰레기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C

수면 아래의 사투

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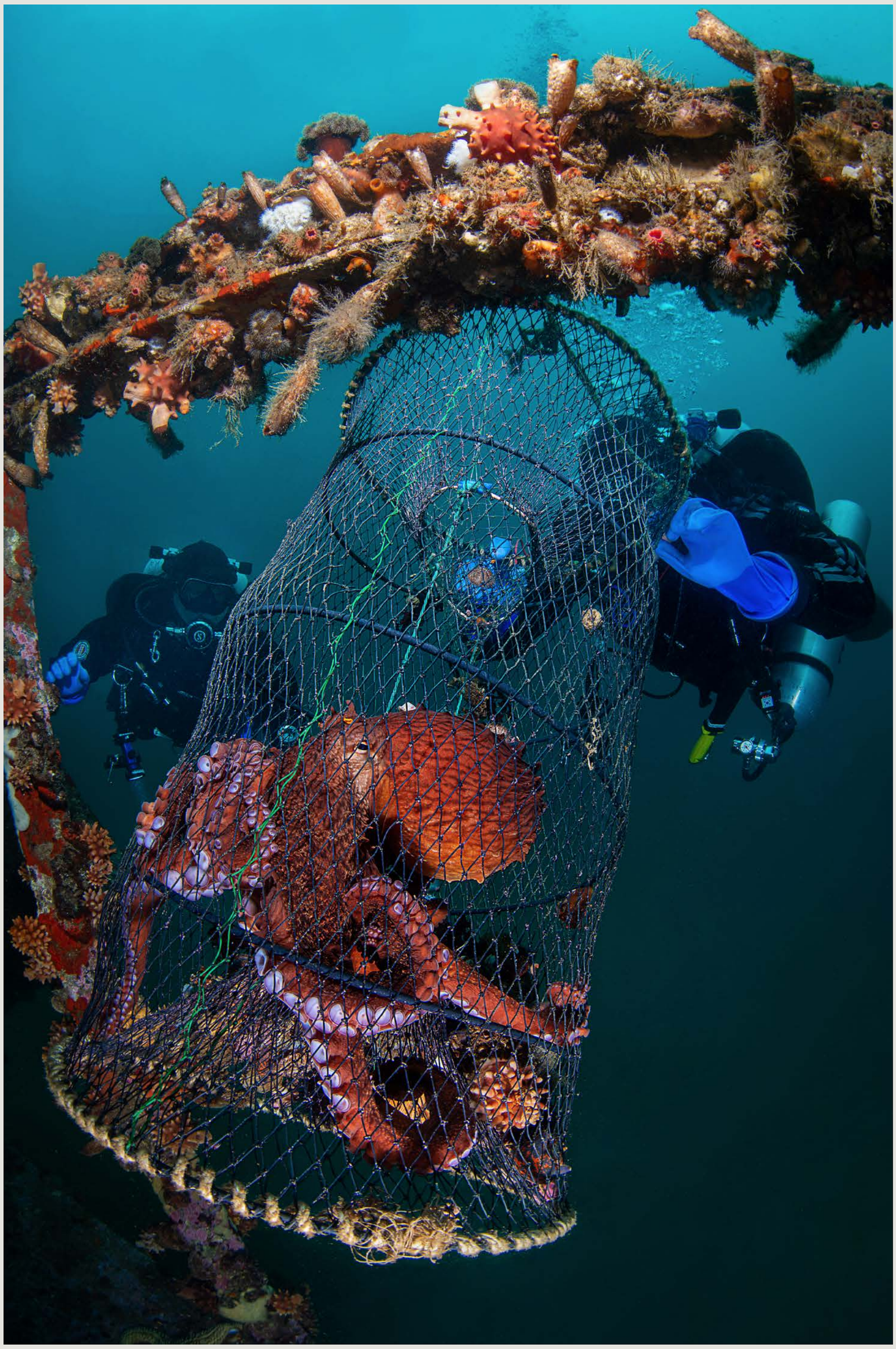


김혜진

강원도 고성

그물에 얽힌 바다는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인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바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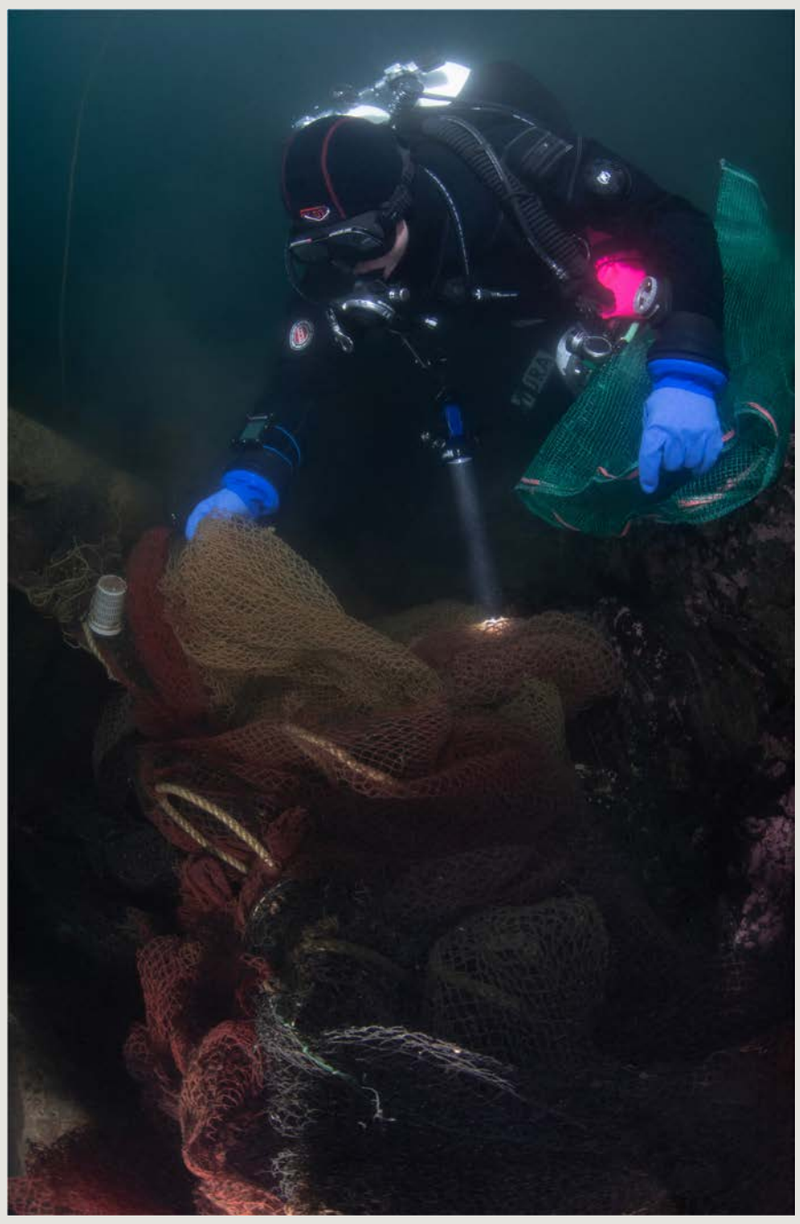


김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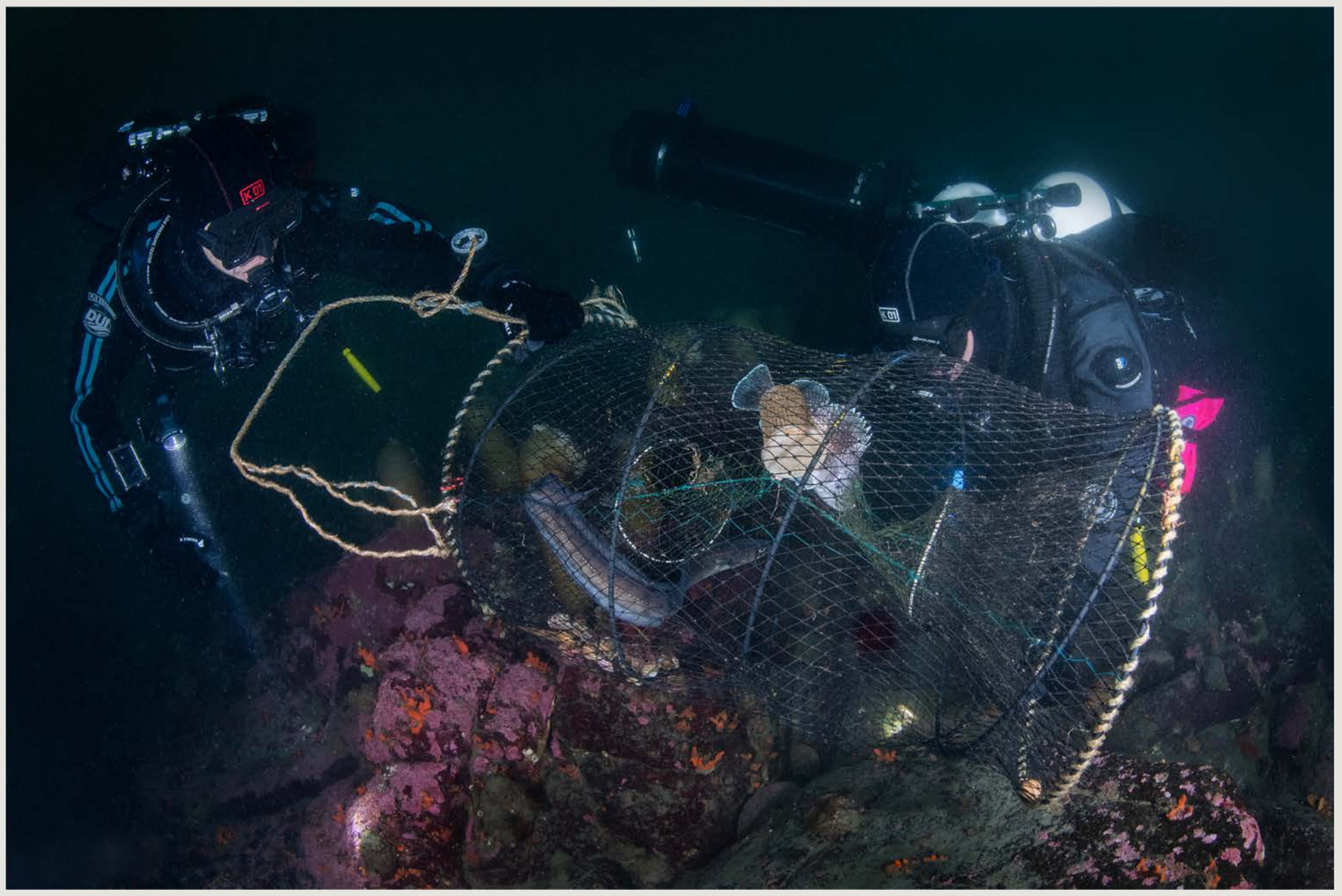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

버려진 통발은 주인 없이 바닷속에서 유령어업을 이어간다. 갇힌 생명들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며 상처는 반복된다.

바다숨 콜라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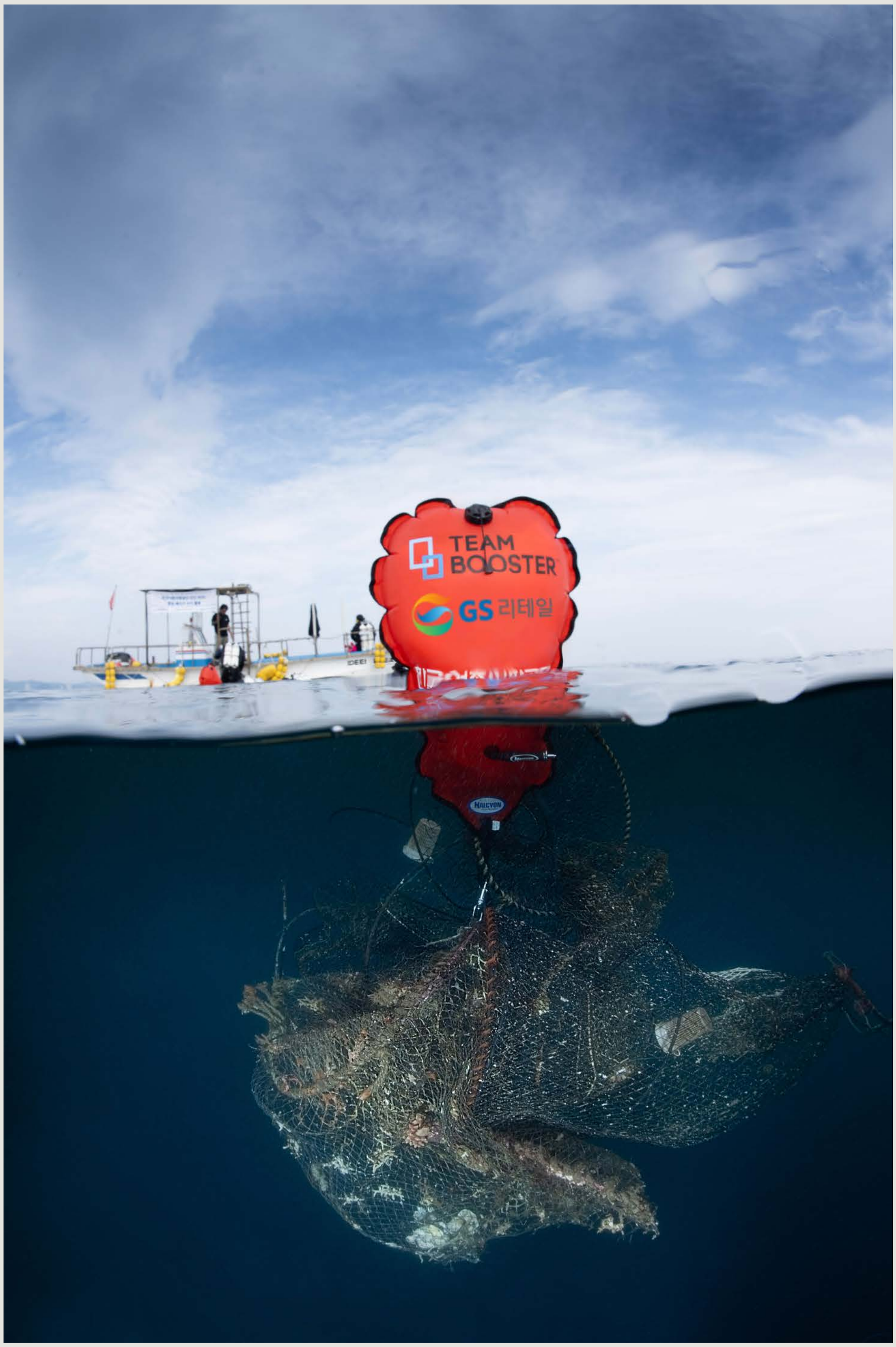




찌그마&팀부스터

바다숨 기록의 여정에 함께해 준 찌그마 동료 작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작가들의 협조 덕분에 바다의 소중한 생명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수면 아래 진실



김혜진

강원도 양양

바다숨 프로젝트 당시 수거한 폐어망과
해양쓰레기가 부양백에 실려 올라가는 순간을
멀리 출수하는 다이버의 모습을 배경으로
반수면 촬영했다.

바다의 깊이

Wall — D





바다숨의 사진가

이번 전시에 담긴 바다의 풍경은 수중사진가
김혜진의 렌즈에서 탄생했다. 회화를 전공하며 다진
섬세한 감각에 GUE Tech 2, 재호흡기, 동굴 다이빙 기술을
두루 갖춘 그는 일반적인 잠수로는 닿기 힘든 깊고 고요한
수중 세계를 유영하며 바다를 기록한다.
그의 작업은 2026년 국제 수중사진 대회인
‘UPY(The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에서
광각 부문 2위와 신인 부문 3위에 오르며 깊이를 인정받았다.

이 벽면에 나란히 걸린 세 점의 작품은 그의 카메라가
포착한 해저 동굴 풍경이다. 쓰레기로 신음하는 얕은 연안을
지나 수십 미터 아래 어둠 속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웅장한 세계가 열린다.
이는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다의 또 다른 본질이자,
대자연의 장엄하고 오래된 민낯이다.

그러나 인간이 남긴 상처는 이 아득한 심연에까지 이른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 수심 10,898m
지점에서도 비닐봉투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해저 동굴 역시 흘러 들어온 폐기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축적되는 자리로 확인되고 있다.
억겁의 시간이 빚어낸 신비로움조차 해양쓰레기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Photographer

김혜진

Hyejin Kim

숙명여자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GUE Tech 2, 재호흡기, 동굴 전문 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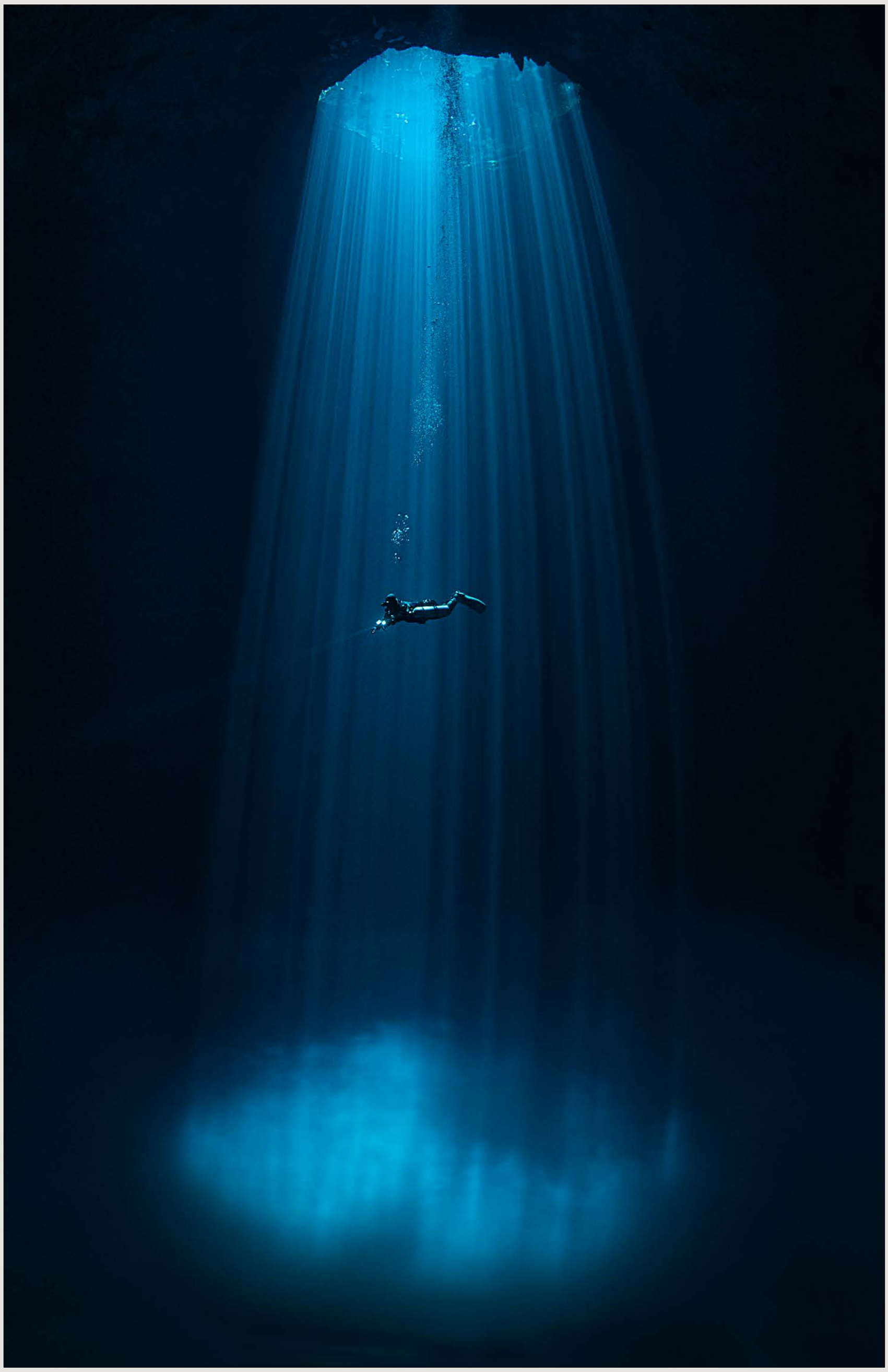
2026 UPY (The 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광각 2위 / 신인 3위

2025 제주 수중사진 페스티벌 접사 대상 / 광각 금상 외 국내외 다수 수상

D

바다의 깊이

Where light desc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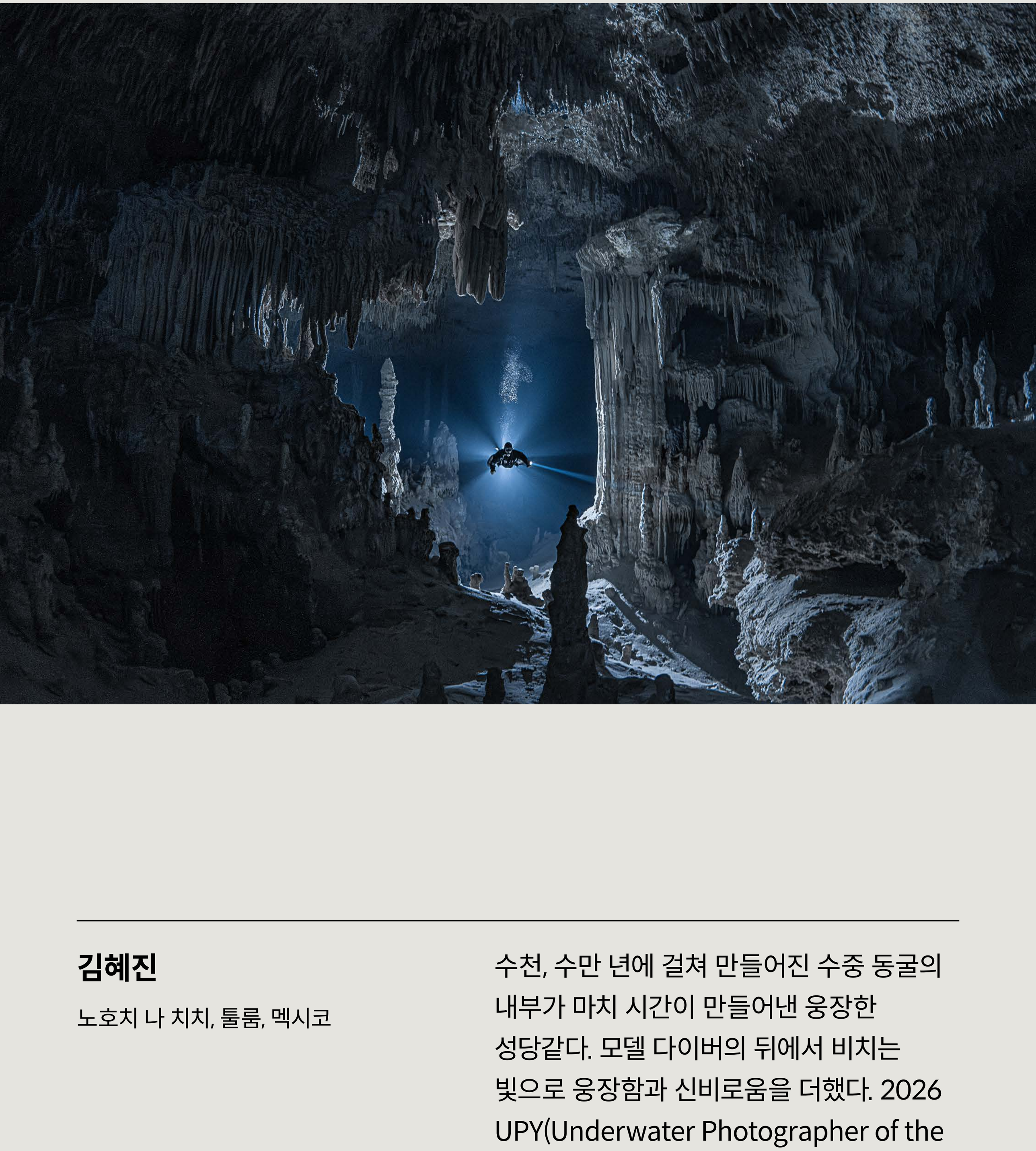


김혜진

마라비야, 툴룸, 멕시코

어둠 속으로 내려오는 빛기둥, 그 속에
인간은 작지만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보다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용기와 그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Cathedral of Time



김혜진

노호치 나 치치, 툴룸, 멕시코

수천,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중 동굴의 내부가 마치 시간이 만들어낸 웅장한 성당같다. 모델 다이버의 뒤에서 비치는 빛으로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더했다. 2026 UPY(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신인 작가상 3위 수상작이다.

바다의 품

Wall — E







바다는 모든 생명을 안고 기르는 품이다.

앞으로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이 거대한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한 얼굴이 펼쳐진다.

빼꼼



김혜진

제주도 문섬

화려한 연산호 사이 작은 복어가 몸을 숨기고, 살며시 앙증맞은 얼굴을 내민 채 바깥세상을 살피고 있다.

고래의 흔적을 찾아서



김혜진

강원도 고성

몇 년 전 강원도 고성 바다 수심 33m 아래에서 고래 뼈가 발견됐다. 동해 바다에서 살아있는 고래를 만났더라면 좋았겠지만, 아쉬운 대로 고래의 흔적을 찾아 사진에 담아두었다.

비밀의 정원



김혜진

제주도 문섬

연산호 아래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꽃총산호히드라라는
작은 생명이 눈에 들어와 촬영했는데,
어둠 속 꽃밭이나 별들의 군락같다.

Wall — F

찬란한 우리 바다





생명력의 세계

잔잔한 수면 아래로 시선을 돌리면,

뭍에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진다.

흔히 아름다운 바다라고 하면 먼 열대의

산호초 풍경을 떠올리기 쉽지만,

단정한 물결 너머 한국의 바닷속 역시 자체로

수만 가지 색과 생명이 일렁이는 풍경을 품고 있다.

햇살이 비치는 물길을 따라 시야를 가득 채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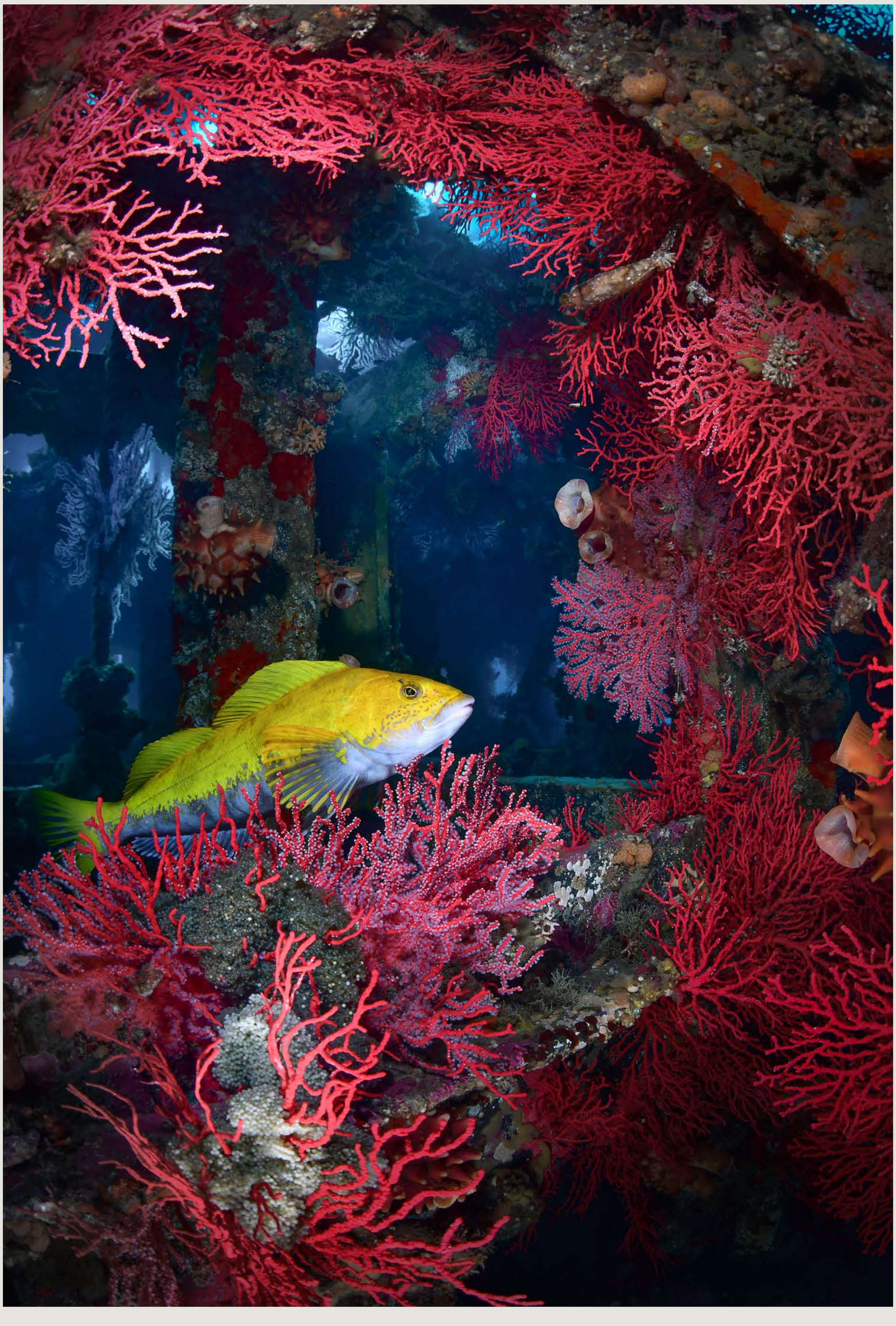
수중 풍경은 경이로운 생명력을 뿜어낸다.

이곳은 '숨 쉬는 생명들의 일상'이다.

이 찬란한 생태계를 마주하면, 누구라도 우리 바다를

지켜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

생명의 방



김혜진

강원도 주문진

겨울철 산란기를 맞은 쥐놀래미 수컷이 샛노란 몸빛을 띤 채 알뭉치 곁을 지키고 있다. 붉은 홍산호와 쥐놀래미, 형형색색의 알과 파란 동해 바다가 이루는 조화가 아름답다. 2026 UPY(Underwater Photographer of the Year) 광각 부문 2위 수상작이다.

F

찬란한 우리 바다

조우



김혜진

강원도 강릉

동해의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다이버, 깊은 바다에서 서로 다른 존재가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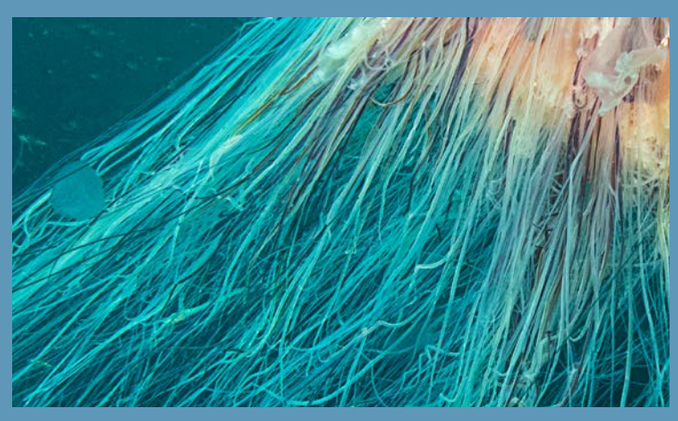
Wall — G

다채로운 이웃들









눈을 맞춰야
보이는 세계

한 걸음 다가서 바위틈과 수초 사이를 들여다보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는 앙증맞음이 있다.
넓은 시야로는 포착하기 힘든 작은 생명들이
생태계를 이루는 공간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 해역에는
14,000여 종이 넘는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삼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리적 조건 덕분에
풍부한 다양성을 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변화가 더해지고 있다.
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하며
낯선 생물들이 유입되고,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종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낯선 바다에 새로 자리를 잡은 종들 역시
기존 생물들과 어우러져 저마다의 리듬으로
일상을 살아낸다.

아늑한 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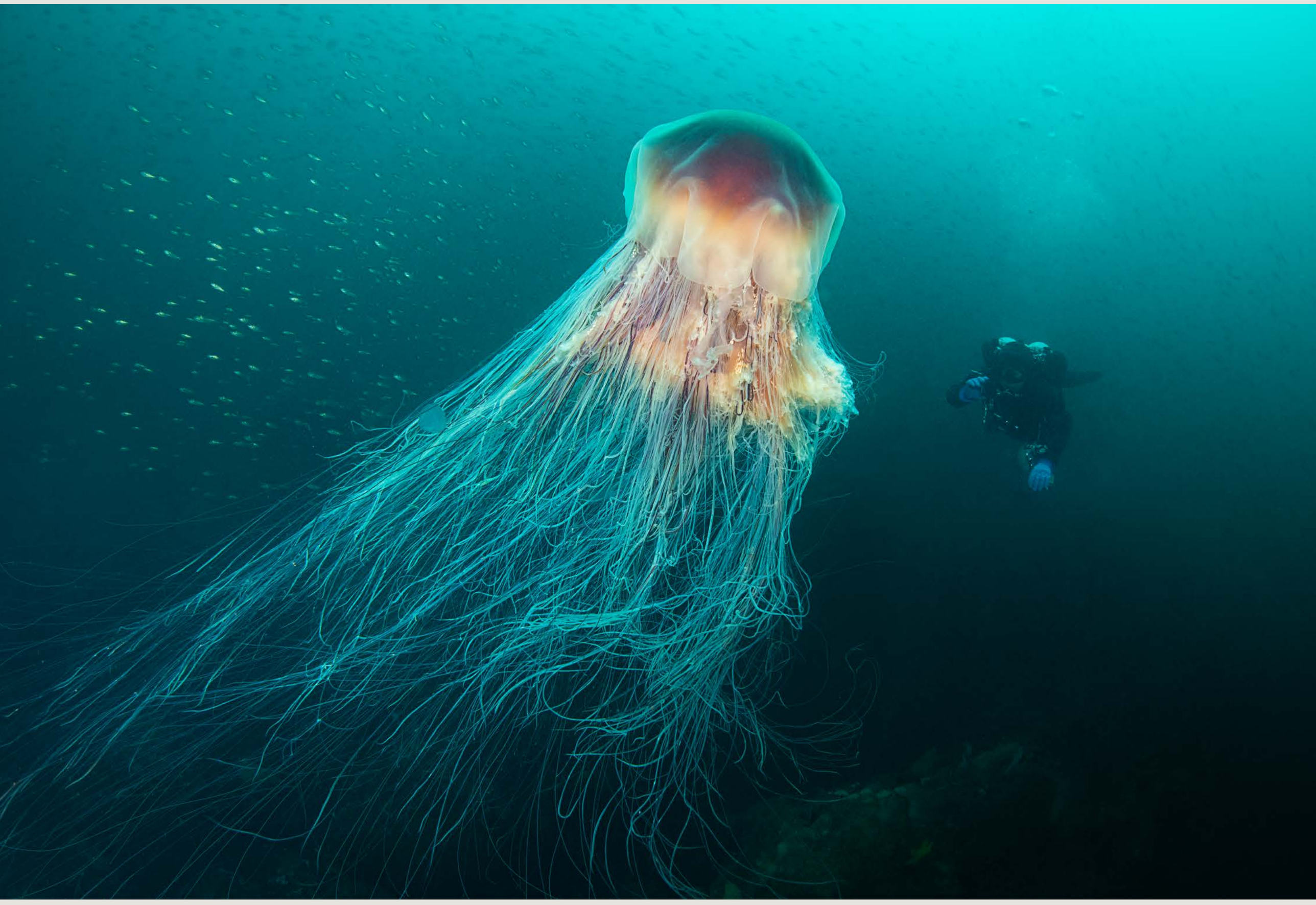


김혜진

제주도 문섬

해면 안에서 안락하게 쉬고 있는 작은 새우를 촬영했다. 둥지 안에서 촬영자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통통한 새우가 귀여운 병아리와 닮았다. 2025 제주도 수중 촬영대회 대상 수상작이다.

고요한 춤



김혜진

강원도 고성

먹이를 끌어모으려 촉수를 드레스처럼 길게 펼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이를 바라보는 다이버의 대비.

베도라치



이경미

강원도 속초

베도라치가 작은 구멍에서 얼굴만 빤히
내밀고 있는 모습을 접사로 크게 촬영했다.

Born in P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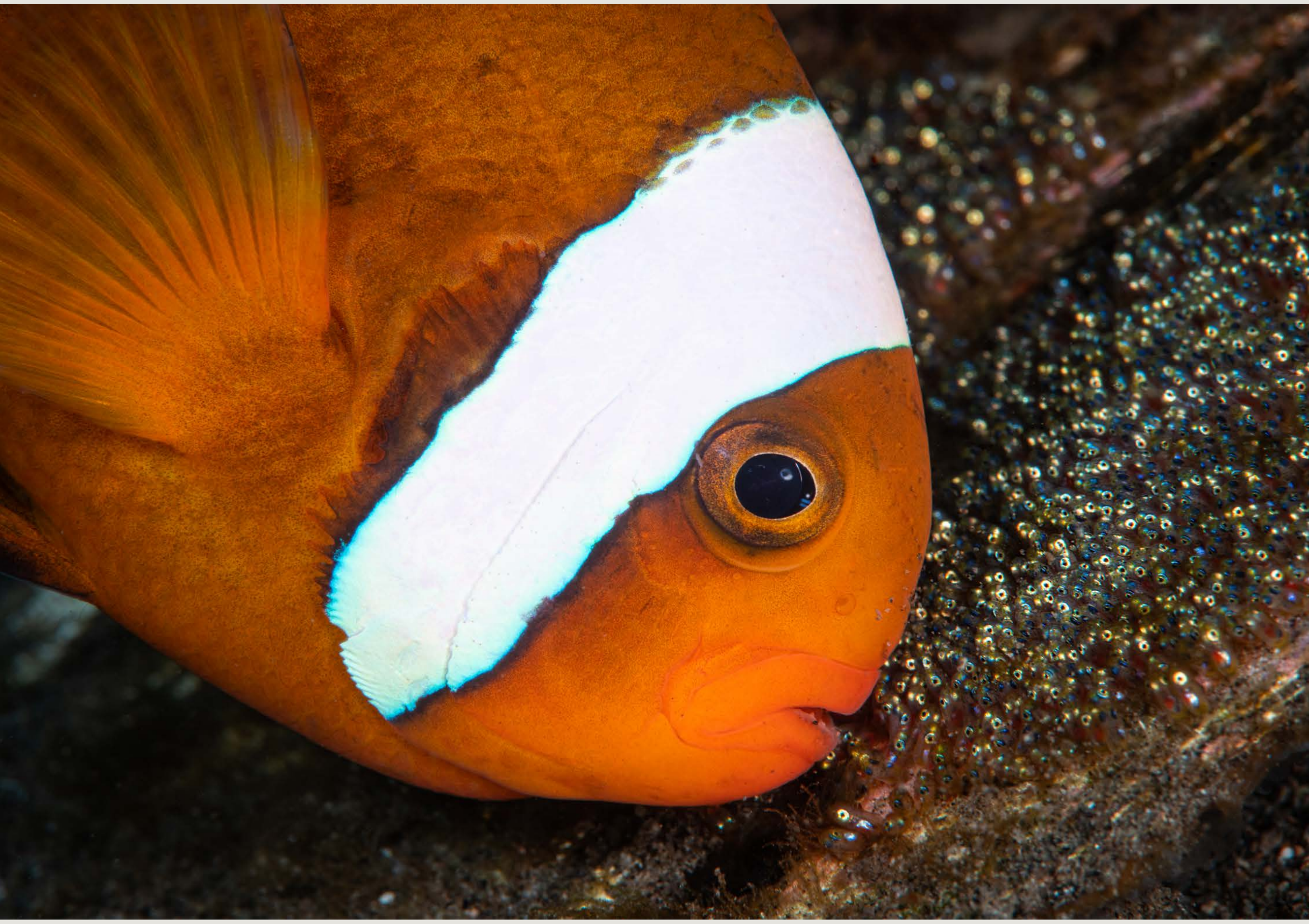


김혜진

제주도 문섬

분홍반점게오지가 화려한 연산호 위를 유유히 산책하는 중이다. 분홍반점게오지는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야행성 생물이다. 2025 제주 수중촬영대회 접사 부문 1위 수상작이다.

알지킴이



김혜진

제주도 문섬

니모로 알려져 있는 흰동가리가 알을 지키고 있다. 흰동가리도 수컷이 알 가까이에 머물며 가슴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로 물을 보내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상한 알과 죽은 알은 입으로 제거해 나머지 알들을 보호한다.

숨 쉬는 생태계

Wall — H / I











변화하는 바다

분홍빛으로 피어난 연산호 군락과
초록빛으로 물결치는 모자반 숲.

숨 쉬는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는다.
바다가 건강하게 호흡할 때 드러내는
본연의 생명력은 조화롭다.

하지만 바다의 생태계에는 멈춤이 없다.
우리가 남긴 흔적으로 바다의 색은 줄어들고,
생물의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지금 눈앞의 풍경을
영영 마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바다숨 풍경은 우리 바다가 간직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이는 바다가 지녀 온 가치를 지키겠다는 약속인 동시에,
숨쉬는 바다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아홉 개 벽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풍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질문의 대답은 사진 속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

아름다운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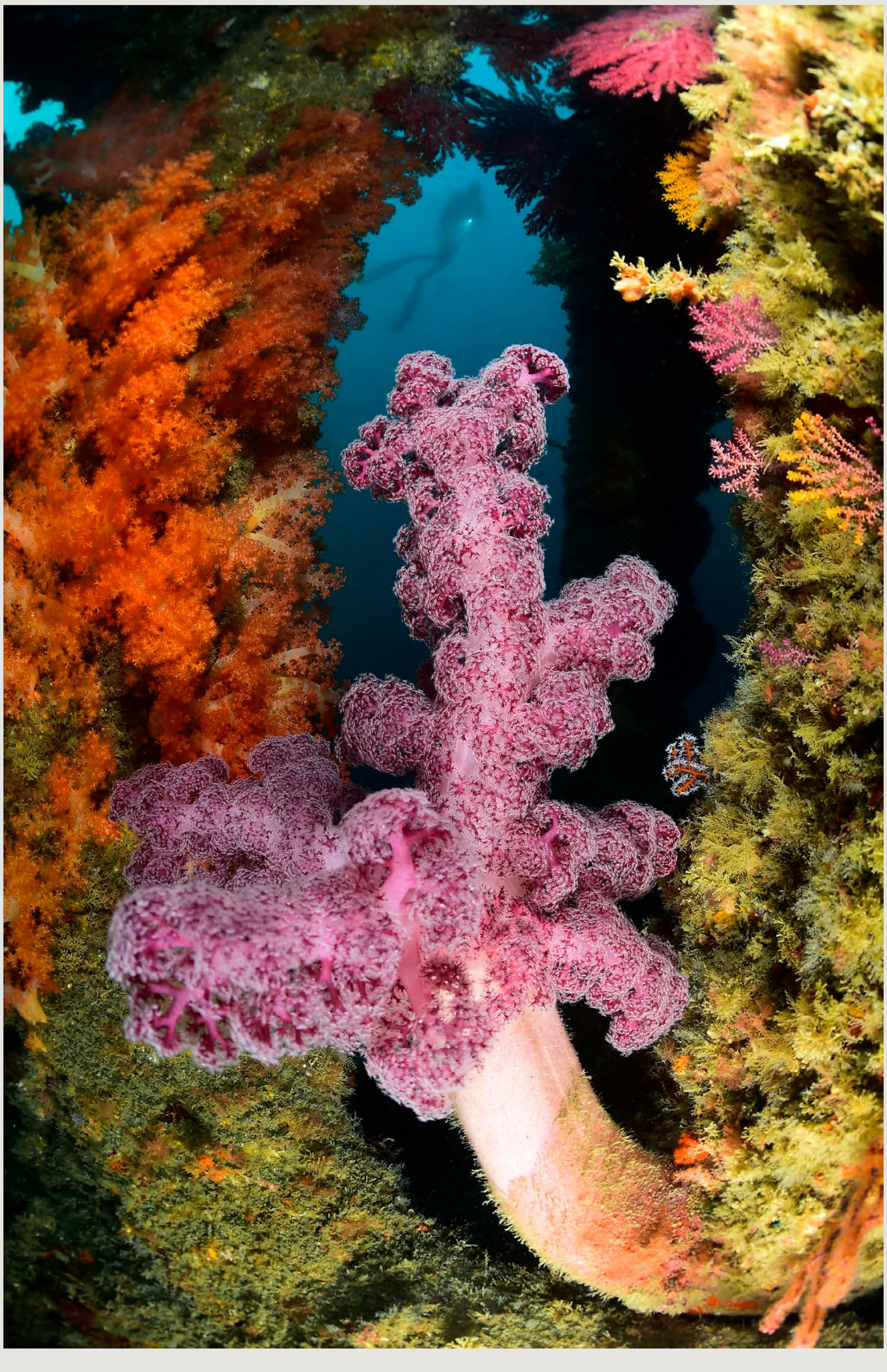


조상혁

제주도 문섬

제주도 문섬의 화려한 연산호와 범돔 떼,
그리고 다이버와 파란 바다.

바닷속 정원



김승집

제주도 섶섬

다채로운 산호 사이로 열린 푸른 공간과 그
너머 다이버가 절묘하게 만났다.

흐름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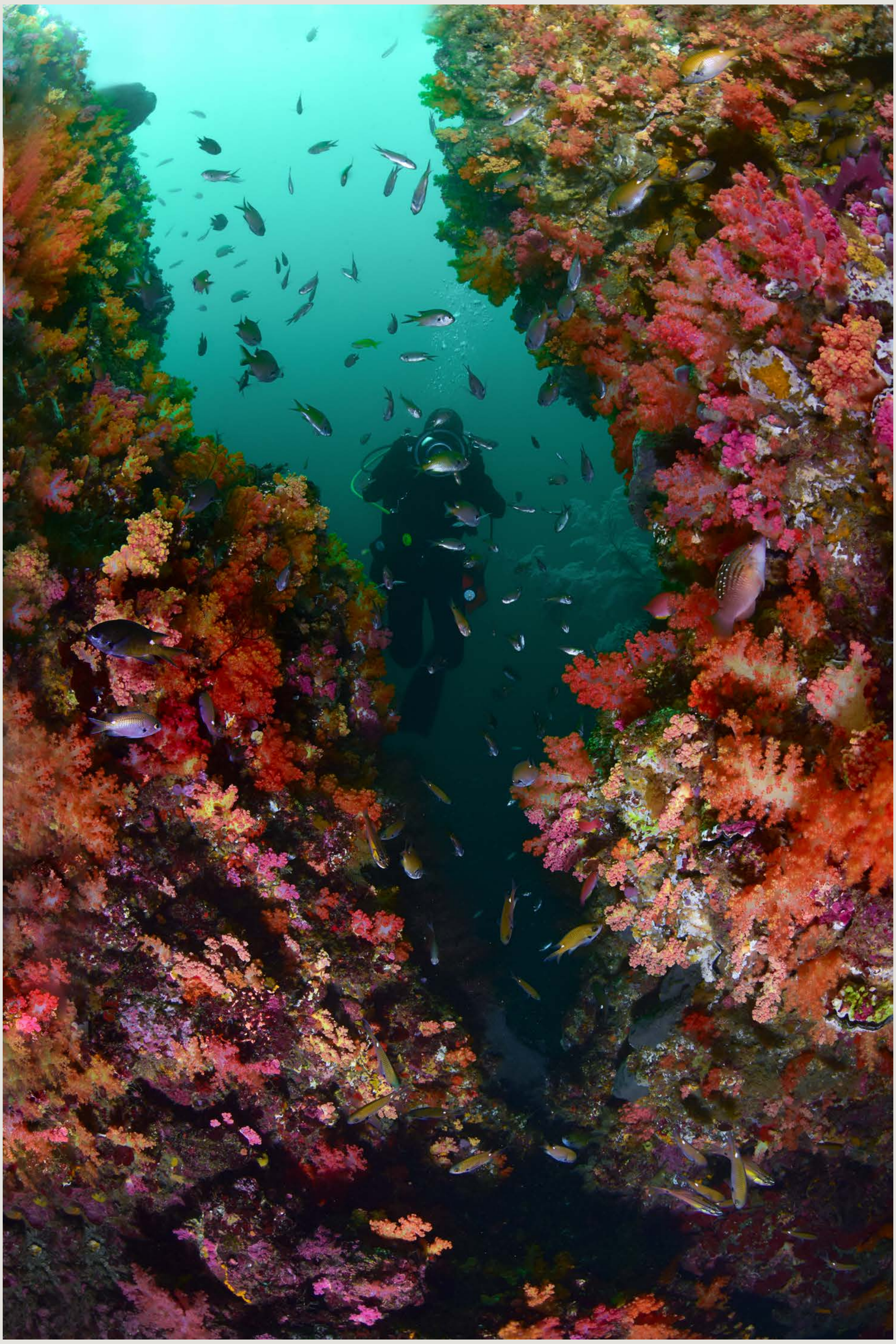


김혜진

울릉도 쌍정초

해류를 따라 몸을 눕힌 초록의 모자반 위로
작은 생명들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살아있는 정원



김혜진

제주도 범섬

바라보는 바다에서 하나가 되는 바다로.

한라산의 봄



김혜진

제주도 문섬

빛이 내리는 제주 바닷속에서 한라산의 봄이 떠올랐다. 산과 바다는 다르지만 계절이 피어나는 그 순간, 바닷속 문섬의 연산호 군락은 진달래와 철쭉으로 뒤덮인 한라산과 닮아 있다. 2021 제주 수중 챔피언십 TOP 10 수상작이다.

THE END

처음 페이지로 이동

전시 안내도로 이동

바다숨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젝트

© 2026 바다숨프로젝트

사진 | 김혜진 글 | 박해주

2026 바다숨 전시회

바다의 숨결을 만나다.

도심에서
만나는
찰나의
해저 산책